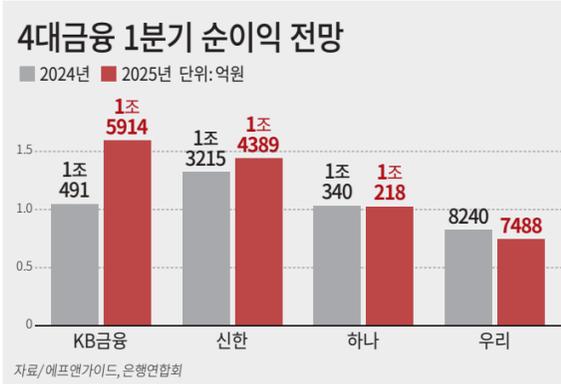


“이자장사 잘했다”... 4대금융, 1분기 순익 4.8조 ‘역대급’

지난해 대비 13.5%, 5723억 늘어 KB금융, 전년비 52% 늘어 1.6조 신한금융, 1175억 오른 1.4조 예상 하나·우리 각각 122억·752억 감소 예대금리차 확대, 이자이익 더 늘듯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늘었지만 핵심 자회사인 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전망치는 총 4조8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4조2286억원)보다 5723억원(13.5%) 증가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모회사의



순이익과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자회사 순이익을 더한 값이다.

◆은행 이자이익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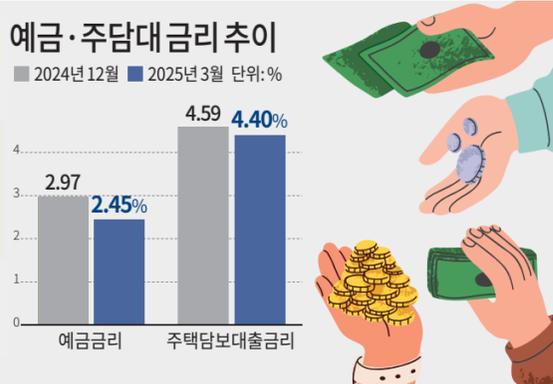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591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억491억원)과 비교해 5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174억원 오른 1조4389억원으로 예상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성장은 부진하지만 기업대출이 성장

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중금리 하락에도 원화대출이 0.7% 성장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1bp(0.01%포인트) 상승하며 양호한 순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1분기 1조218억원, 748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2억원, 7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경우 흡플러스와 신동아 건설



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각각 270억원, 320억원이다”라며 “주로 비이자이익 및 총당금 전입액을 조정하면서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금 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고정

4대금융의 순이익 중 이자이익에 대한 손실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은행의 이자이익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 3.00%에서

2.75%로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돼 이자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4대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평균 4.39%로 지난해 말(4.58%)보다 0.19%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4대은행의 기본 예금금리는 평균 2.45%로 한달 전 4대은행이 취급한 평균금리(2.97%)보다 0.52%p 떨어진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예금금리가 더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평균 1.2%에서 1.41%로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전환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일자리 주선 ‘외국인 고객’ 공략

외국인 앱 ‘우리WON글로벌’ 보강 앱 내에 한국어능력시험 강의 오픈 상반기 중 일자리 플랫폼 구축키로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공략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해왔다. 우리은행은 자사 외국인 고객용 앱의 기능을 개선해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자사 외국인 고객용 모바일 앱 ‘우리WON글로벌’을 보강하고 있다. 출시 당시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송금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앱 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강의를 오픈한 데 이어 올하는 상반기 중 서비스를 목표로 외국인 고객용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은행이 준비 중인 일자리 정보 플랫폼은 외국인 고객이 구직·이직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언어 장벽과 정

보 부족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우리WON글로벌’에서 서비스 중인 17개 언어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잡코리아, 인크루트를 비롯한 4개 이상의 취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세인 만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 확대에 힘쓰는 것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잠재성 높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명이다. 이는 기존에 역대 최대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 약 13만명 늘어난 규모로,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가 5122만명의 5.17%에 해당한다. 이 중 장기 체류자(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

국인)의 비중은 77%를 기록했고, 직업 활동이 활발한 20~40대의 비중도 65.6%에 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E7(숙련기능)·E9(단순업무) 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했다.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꾸준히 늘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환전·해외송금 등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익성 높은 잠재적 고객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한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고객 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형태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라며 “우리WON글로벌에서는 일반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직군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할 계획으로, 유관 업체와 협력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생명, 보험거래 모든과정 ‘디지털화’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 도입

삼성생명은 계약변경부터 보험금지급까지 유지, 지급 단계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신계약 가입 프로세스 디지털화에 이어 이제 보험 거래의 모든 단계가 종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진다.

삼성생명은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계약자 변경이나 사고보험금 청구 등 기존에 플라자나 지점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영상 상담을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디지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서류 작성부터 신청, 처리까지 직접 터치모니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 보험 업무 디지털화 이미지. /삼성생명

고객에게 교부하는 문서도 모바일을 통해 곧장 전송한다. 공공서 서류 등 고객의 증빙서류도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시스템과 연계해 모바일에서 바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 업무도 전자위임장을 통해 종이 없이 처리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보험 유지 및 지급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e-Form)로 전환하고 직관적인 용어와 가독성 높은 디자인을 적용해 고객이 보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주희 기자 gh471@

분양가 급상승에 ‘분상제’ 단지만 인기

분상제 단지 1순위 경쟁률 42대1 미적용 단지 청약은 6대에 불과

치솟는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다른 단지 대비 약 7배 가량 높았다. 작년 청약 진행한 단지는 전국 295곳이다. 이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 적용되지 않은 곳은 247곳이었다.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가구수(특별공급 제외)는 2만896가구다. 1순위 청약에만 87만9165건이 접수돼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일반분양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6대 1에 불과했다.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파주 동패동 GTX운정역이 지터된(60대 1),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아티라(30대 1) 등이 경쟁률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

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들이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2053만원을 기록했다. 과거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처음 돌파한 2016년(1050만원)과 비교하면 8년새 2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도 88.36에서 130.12로 크게 뛰었다.

올해도 분양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6월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규제 등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LH, 서민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청년 1666호 등 전국에 총 3003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

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임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방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상미 기자